

모두가 꿈을 꽃피울 수 있는 '꿈꽃교육' 실천

6 ·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도내 교육감선거가 함께 이뤄진다.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현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6명의 예비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다.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는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도교육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이미영 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도내 여러 시군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역교육 현안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서거석, 천호성, 황호진 예비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유광찬 예비후보를 만나 정책과 소신, 철학 등을 들어봤다.



Q.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계기는?

A. 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시교사, 그리고 교대 교수와 총장을 하면서, 교육감에 최적화된 후보라고 판단했고, 진영논리와 한법 논리로 무너져가는 전북교육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평소 생각해왔던 교육철학과 풍부한 현장경험, 그리고 총장으로서 성공한 행정력까지 검증받아, 이제는 전북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법논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논리에 의해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 모두가 꿈을 꽃피울 수 있는 '꿈꽃교육'을 실천하고, 교육자로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다.

Q.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현재까지는 선거운동이 너무 제한돼 있어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어떤 철학으로, 어떤 공약으로, 전북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점차 저의 전문성과 공약 그리고 더 잘 준비된 최적의 교육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권자들이 적극 호응해 주고 있어 힘이 난다.

특히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는 법대교수보다는 교육학자이면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현장경험과 성공한 행정경험을 가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교복입은 친근한 교육감, 다정한 교육감예비후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Q.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속 5년간 도내 중

고교생의 기초학력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2017년 10월 24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이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5.49%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해,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기초학력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학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과 참학력 정책의 실패가 학력저하의 최대 요인이다.

도교육청은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교육과와 교육혁신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런 다음 두 과에 각각 학력신장팀을 별도로 설치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력신장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

Q. 진로정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A.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현재의 교육정책연구소를 진로진학연구소로 바꿔 진로진학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진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꿈과 희망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위주의 교육과 진로지도는 지양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 모두가 꿈을 꽃피울 수 있는 진로정

기초학력, 사람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학력을 길러주는 것

현 교육정책연구소, 진로진학 연구소로 바꿔 진로정책 연구

학생 개개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야

도교육청 학교교육·교육혁신과 초등·중등교육과로 개편 4대 교육비 지원 등 복지과 신설 교육지원청에 돌봄센터 설립 유치원 무상교육도 실시

Q.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공약이 있습니까?

A. 첫째, 학력신장과 학교급별에 따른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와 교육혁신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하고, 학력신장팀을 신설하겠다.

둘째, 4대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지원, 실직자녀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위해 학생복지과를 신설하겠다.

셋째, 초등돌봄으로 인한 학교 부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기 위한 돌봄거버넌스 구축, 교육지원청에 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

넷째,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등한 보장을 위한 교권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 학생 안전체험센터를 조성하겠다. 일곱째,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교복을 입고 선거홍보를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고 소통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었으며, 둘째는 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었는데, 기적적으로 익산에 있는 원광고등학교에서 3년 장학금 제도가 있어 자취를 하면서 공부하고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내 인생 터닝포인트가 된 고등학교를 잊지 못해서 교복을 입었고, 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감실에 제가 입었던 교복과 마네편이 입었던 교복을 걸어 놓고, 초심을 잊지 않고 어려운 학생을 돌봐 전북교육이 빛나도록 하겠다.

또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를 책임지는 자리다. 따라서, 현장교사경험이 필수적이고, 성공한 행정경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북교육감은 이러한 것과 상관없는 농대교수, 법대교수가 교육감을 맡으면서 교육논리가 아닌 한법논리와 진영논리로 교육을 재단함으로써 불통과 편견에 의한 정책과 인사로 인해 현상이 너무 폐쇄해졌다.

소외와 차별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인 혁신학교 정책을 전면 개선해 모든 학교와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대우받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꿈꽃학교 정책을 시행하여, 전북을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총장까지 그리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대교수로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현장교육전문가이면서 검증된 교육행정가로 누구보다 더 잘 준비된 교육감이고 교육감에 최적화된 후보임을 자신한다.

/이상민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한민안국)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승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